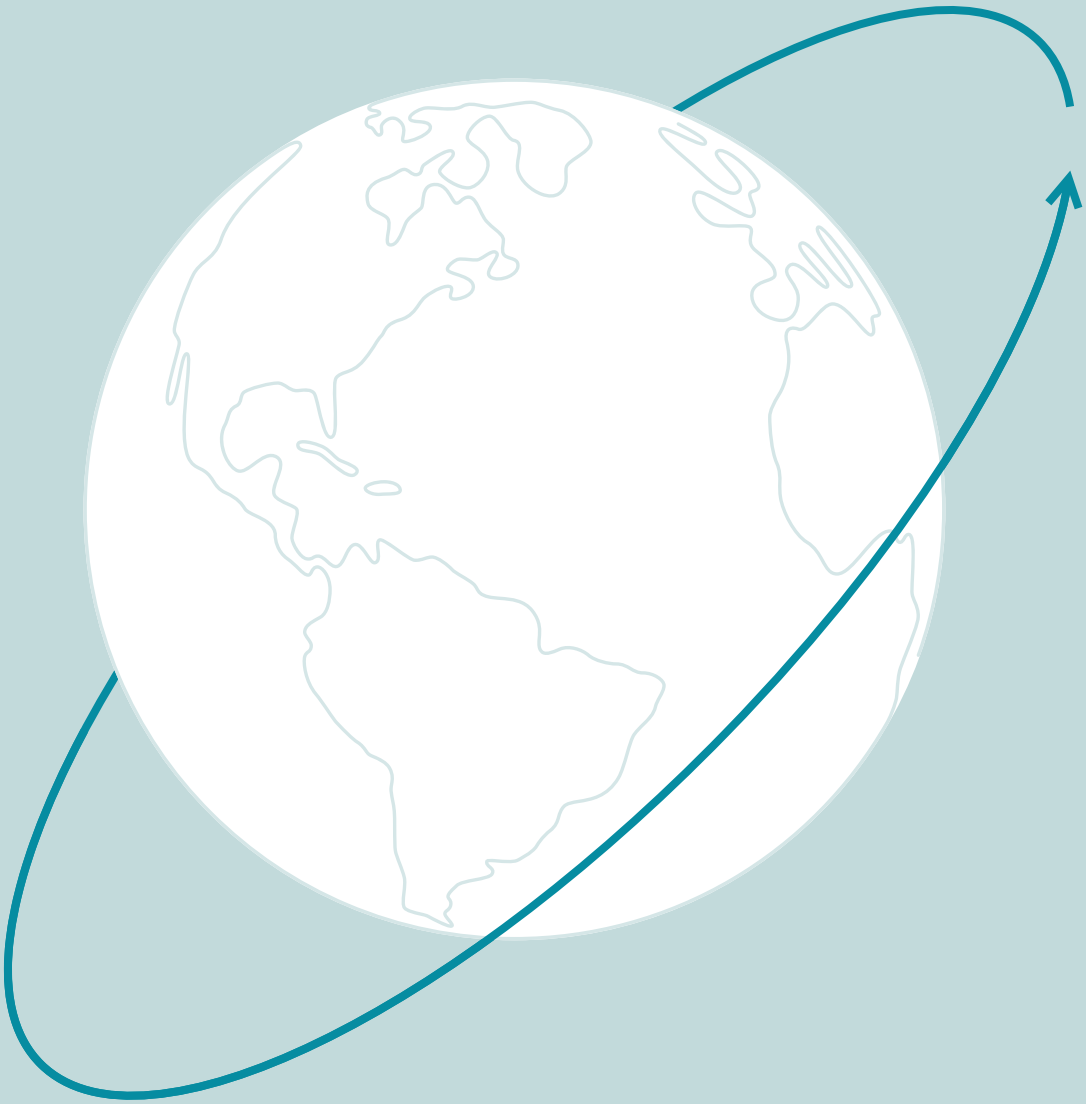
202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NEXT STORY



NEXT
Next
Expert
Training

202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NEXT STORY

목차

04 **NEXT 사업소개**

0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06 **전주세계소리축제: 4개월 간의 기록**
김구희 | 전주세계소리축제

10 **일광해수욕장과 미술제: 이상블라주**
백경진 | 부산비엔날레

14 **바닷가에서 전시를 만든다는 것**
송지영 | 부산비엔날레

18 **TURN THE PAGE! 우리 모두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
심지윤 | 강릉국제영화제

22 **Let's Turn the**
조아란 | 강릉국제영화제

26 **의미를 위해 비워둔 자리**
염시정 | 서울국제작가축제

29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준 자라섬에서의 시간들**
이지예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32 **상상하고, 관찰하고, 정리하고**
홍혜원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35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조수빈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39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40 **오징어게임이 있기까지, K문화가 앞장서기까지**
강지수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43 **프랑스의 한국산 청개구리**
신정민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46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왕궁을 품은 도시**
윤현진 |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음악 페스티벌

51 **봉쥬르, 굿바이, 벨기에**
정혜성 |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54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것**
추수연 | 영국 XTRAX

57 **기파편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58 **프로젝트 더 그레잇 뮤지엄**
목홍균

61 **포털, 두 도시의 시·공간을 넘나들기**
장은하

65 **NEXT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Next
Expert
Training

NEXT 사업소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Expert Training, NEXT)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기획 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해외파견, 후속 프로젝트 지원, 아카데미 운영 등 신진인력에서 전문인력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NEXT Intensive Training Program

국제적인 수준의 국내 대표 축제들과 협력하여 신진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집중양성과정 참가자들은 국제문화교류 이론교육부터 현장실습,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Placement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경력단계별 해외파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행사 인턴십, 재외한국문화원 공동 프로젝트 기획, 해외 문화 전문기관 펠로우십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 지원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지원
NEXT Follow-up Support

기존 NEXT 사업 참가자의 지속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들이 국제무대에서 문화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Academy

국내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종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현장 종사자들에게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NEXT 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아카데미>는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NEXT Intensive Training Program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 실습기관	실습기간
김구희	전주세계소리축제	2021.7.1.~2021.10.31.
백경진	부산비엔날레	2021.7.19.~2021.11.18.
송지영	부산비엔날레	2021.7.19.~2021.11.18.
심지윤	강릉국제영화제	2021.7.5.~2021.11.21.
조아란	강릉국제영화제	2021.7.5.~2021.11.21.
염시정	서울국제작가축제	2021.7.12.~2021.12.31.
이지예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021.6.21.~2021.12.20.
홍혜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021.6.21.~2021.12.20.
조수빈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21.7.1.~2021.12.15.

전주세계소리축제: 4개월 간의 기록

김구희 | 전주세계소리축제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무대 (출처: 김구희)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나의 막연한 목표는 대학에서 한국학, 언론정보, 기록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도서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실습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나의 전공은 문화예술계가 아닐뿐더러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도 전무했기에, 본 프로그램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였다.

제20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역지침으로 인해 객석의 30%만 오픈하였고 모든 관객들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전예매를 해야 했다. 이처럼 축제의 모든 과정은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5일 동안 '산조의 밤'과 같은 전통의 원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우정아', '다크니스 품바' 등 현대 장르와의 콜라보나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나 지난해 비대면으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 포스터
(출처: 김구희)

로 진행한 미디어 공연에 이어 올해는 실내 공연 중심의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접목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실험을 이어간 결과,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5일간의 본 축제가 끝난 후에는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통해 전북지역의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공연을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다.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인턴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축제에 참가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동향을 파악하고 자가격리 면제 절차, 공항 검역 절차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 3개국의 공연팀 초청은 무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지만, 축제 기획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면서 축제 기획 과정의 일선에 참여하여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계약 관련 기안을 작성해보기도 하고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북을 제작하기 위해 국문, 영문 원고를 검수하였고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축제를 홍보하는 모객 활동도 하였다.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명단을 취합하는 일도 담당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참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이 업무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을 들여 진행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공연자 안전 교육, 국제문화교류 간담회, 문화정책 대토론회, 아시아뮤직네트워크 미팅 등 문화예술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할 기회도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추진 현황과 문화콘텐츠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야외공연장 무대 리허설 현장 (출처: 전주세계소리축제))

4개월간 실습생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아티스트를 무대 위로 올릴 때까지 수많은 서류작업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축제의 방향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아티스트들을 리스트업하고 초청, 공모 등의 방법으로 아티스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티스트들과 계약을 진행하고 축제가 시작할 때까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연의 내용을 상호점검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현황 조사, 방역부스 설치 등 방역 관련 사항은 공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공연 당일에는 방역 관리, 대기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축제가 끝난 후에는 아티스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각종 서류 작업이 동반되었다. 그렇기에 축제의 기획은 기획팀에서 주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홍보팀, 무대팀, 행사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의 중요성이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외부 워크숍,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문화예술계 인물들과의 파트너십, 협업을 통해 이번 축제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각 시군의 문화콘텐츠 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한 포럼에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을 결합한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와 첫 만남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협업을 통해 부채모양의 칼림바를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계에서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세 번째는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난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공연 예정이었던 아티스트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유난히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막을 코앞에 둔 공연을 어떻게 치를지 고민하고 공연과 관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문제를 융통성있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대처 능력과 빠른 판단 능력은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 역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개월 동안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국제문화교류 인력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공연예술 분야 경험이 하나도 없는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획팀의 업무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아티스트 초청이 무산되었지만, 국제 규모의 축제에서 해외 아티스트 초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제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한국학 전공자로서,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소망하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세계에 소개하는 축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었다. 4개월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 인력으로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한다.



폐막공연 후 축제 스탭 기념사진 (출처: 김구희)

행사개요

행사명 전주세계소리축제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행사기간 2021.9.29.~10.3.
행사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www.sorifestival.com

김구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기록학을 전공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도서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국제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메일 ghkim0126@naver.com

일광해수욕장과 미술제 : 아상블라주

백경진 | 부산비엔날레



오태원, <영혼의 드롭스>, 2021, 특수 강화 비닐, 오로라필름, 각 600x400x400cm 작품과 노을 (출처: 백경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간 무용학원에서 무용을 시작해서 예술을 사랑하게 되었다. 전문 무용수로서의 삶을 잠시 접어두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러피언의 삶 속에 녹아있는 예술을 동경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넌 한국에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 거야?"라고 물으면 "나는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어떤 일을 할 거야!"라고 대답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기획 전반에 대하여 배우며 일했고 점차 국제문화교류로 눈을 넓혀서 NEXT 집중양성과정에 합류하게 되었다.

>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 당신은 그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 — 스티브잡스 (Steve Jobs, Steven Paul Jobs) [스티브잡스 스탠포드 연설 발췌]

무용을 전공하고 문화예술기획을 배워서 이제는 국제문화교류까지 와 있다. 나는 점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2021바다미술제의 전시 주제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가 크게 와닿았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격년제로 짝수년엔 비엔날레를 홀수년엔 바다미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1년은 홀수년으로 일광해수욕장에서 약 한 달간 2021바다미술제가 열렸다. 2021바다미술제의 주제는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Non-/Human Assemblages)> 이다. '아상블라주? 먼 소리고?' 주제를 들었을 때 일단 아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물음표를 그리고 있었다. 나는 실습 기간을 거치면서 주제에 대해 '나는 인간이기도 하고 비인간이기도 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서 인용한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에서 확장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인간과 비인간은 각각의 점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제인 만큼 바다를 비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이 창조해낸 작품(비인간)들이 인간과 바다를 연결시켜 나갔다.

> 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결합체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오로지) 인간이기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불가피한 인간다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시 언제나 인간 이상의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몸의 '물'은 물질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이것을 증명한다.
>
> — 아스트리다 네이마니스(Astrida Neimanis), Bodies of Water



2021바다미술제 프레스프리뷰 현장 (출처: 백경진)



2021바다미술제 기자설명회(비대면) 현장 (출처: 백경진)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손 하트를 싫어하는 유쾌하고 시크한 리티카 비스와스 전시감독님의 사상은 그녀의 언어에서 느껴졌다.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누구보다 진지하고 전문적이며 팀원들의 의견을 선입견 없이 들어주었다. 학술팀은 퍼블릭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울 수 있는 전시주제를 가볍게 느낄 수 있게 풀어냈고, 학술프로그램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5명의 부산 출신 작가를 비롯한 13개국 22팀 36명의 참여작가들은 부산, 특히 일광 바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일광 주민들과 협업하며 22개의 작품을 만들어



김경화,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2021, 자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300x220x220cm
2021바다미술제 프레스프리뷰 전시관람 (출처: 백경진)

갔다.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 팀의 해외작가만 입국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에 적응되어서일까? 아니면 2020부산비엔날레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이력 때문일까?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2021바다미술제에서는 코로나19를 느끼지 못할 만큼 활기차고 안전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바다라는 오픈된 미술관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예술계도 비대면, 메타버스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술은 현장에서 주는 에너지를 빼놓고 거론될 수 없다고 믿는 나는 조직위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2021바다미술제의 홍보마케팅팀으로 배정되어 DB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서포터즈 운영 지원, 대외 안내, 언론홍보, 초청, 인쇄광고 등 업무를 맡았다. DB개발과 과년도 도록을 읽으면서 미술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점차 나아가 국제홍보마케팅의 업무를 익힐 수 있었다. 해외홍보 업체와의 소통은 주로 메일과 줌미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자 설명회와 프레스 프리뷰는 각각 비대면과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프레스 프리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현장의 기자님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 홍보를 통해 팔로우와 구독자 수를 높혔으며 관객으로부터 게시물이 유용하고 재미있다는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 나는 미술을 좋아하는 성공한 덕후로서 전시를 홍보하고 기록하고 싶어 22개의 작품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렸다. 해외작가들의 사진과 영상 요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교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홍보마케팅과 미술 두 분야 모두 이렇게 깊이 있는 업무는 처음이라서 실습기간 내내 배우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들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특히 기획단계부터 실습생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끌어주신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가이드맵 제작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전시팀과 협력하면서 전시팀의 업무도 이해할 수 있었다. 미술에 관한 지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던 내가 그냥 좋아서 프라도미술관에서 6시간 이상을 관람한 적이 있다. 고흐의 그림에선 그 장소의 바람이 느껴졌고 클림트의 초상화에서는 그 인물과 대화할 수 있었다. 내 맘대로 느끼고 해석하는 미술이 너무 좋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습 기간 동안 단 한 번 진행되었던 단체회의에서 큐레이터 선생님들



류예준, <주름진 몽상의 섬들>, 2021,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우레탄폼, 철골조, 300x1125x750cm
전시를 관람하는 아이들 (출처: 백경진)

의 작품 설명과 설치계획을 들었을 때는 직업만족도 100%라고 소리치며 다녔다. 미술작가들도 무용안무가와 다르지 않게 자신의 사상을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미술제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조직위에 속해있는 내가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평생을 '해수욕장'으로만 불릴 줄 알았던 일광 해변은 바다미술제를 만나서 '전시장'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모래가 파이고 대나무, 철제, 재활용품, 영상, 머리카락 등의 미술이라는 옷을 입고 일광의 파도와 함께 교감한다. 전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가 누가인지 구분 짓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넘어 확장해가려고 노력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과정의 마지막에 와 있는 지금 미래로 가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을 이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행보가 자랑스럽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그만큼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문화예술기획이라 쓰고, 막노동과 서류의 무덤이라고 읽는다"라고 생각하며 일에 치여있던 내게 잠자고 있던 예술세포와 열정을 끌어내 준 감독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하며 4개월의 짧지만 넓고 깊은 행보를 잊지 않고 미래의 국제문화교류를 향한 점들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한다. "Feel the art and be part of Assemblages!"

행사개요

행사명 2021 바다미술제 Sea Art Festival 2021
행사기간 2021.10.16.~11.14.
행사장소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일대
홈페이지 www.busanbiennale.org

백경진

한국무용을 전공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국제문화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유럽으로 떠났다. 길거리라는 무대를 제일 좋아하고 버스킹과 미술을 사랑한다. 성공한 덕후가 되어 국제미술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의 인생과 예술이 아상블라주가 되어 나를 키워준 사회에 기여하길 원한다.
이메일 happybkj5@gmail.com

바닷가에서 전시를 만든다는 것

송지영 | 부산비엔날레



2021 바다미술제 퍼플릭 프로그램 '싱잉볼 명상 테라피'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 송지영)

학생으로서 미술을 공부하던 동안에는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국제교류 전시를 직접 관람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시를 보러 다른 나라와 도시를 방문하곤 했다. 오직 전시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낯선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전시 공간의 광활함과 적게는 십 수 명, 많게는 백여 명에 이르는 참여 작가의 명단을 보고 놀라곤 했다. 특히 도시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럽의 비엔날레들을 관람할 때마다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현실에 구현하는 일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 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우연히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부산비엔날레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염원하던 대로 부산비엔날레조직위 전시팀 코디네이터 실습생으로 파견되었다.

부산비엔날레는 부산의 예술가들이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왔던 부산청년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그리고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 3개의 예술 행사가 통합되어 2001년 탄생했다. 2002년 첫 행사 이후

로 20년 동안 격년제로 개최되어 왔으며 현시대의 정치, 사회 동향을 주제 삼는 여타의 비엔날레와 다르게 부산 고유의 지역과 문화 정체성에 주목한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이 부산비엔날레를 주최하는 기관으로서 2003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부산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 두 개의 행사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바다미술제는 2001년 부산비엔날레에 통합된 이후 비엔날레의 부수적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짝수 해에 개최되는 비엔날레와 분리되어 홀수 해마다 부산 곳곳의 바닷가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2021년 홀수 해이므로 나는 바다미술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연혁", 2021년 12월 25일, http://www.busanbiennale.org/BBOCkr/index.php?pCode=history

바다미술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닷가에서 개최되는 격년제 국제교류 전시라는 점이다. 해양을 배경으로 야외 공간에서 약 한 달여간 열리는 전시이므로, 실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으며 주변의 자연환경 요소에 작품이 항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부산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전시의 장소가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면서 부산의 해양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전시 작품들과 학술 및 퍼블릭프로그램을 통해 엮어낸다. 2021년 바다미술제는 인도에서 온 리티카 비스와스(Ritika Biswas) 예술감독이 《인간과 비인간 : 아상블라주 Non-/Human Assemblages》라는 주제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생태, 예술적 흐름, 그리고 사회-정치적 관계망을 만드는 물과 바다의 유동성에 관해 전시를 기획하였다.**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시주제", 2021 바다미술제, 2021년 12월 25일, http://www.busanbiennale.org/SAFkr/index.php?pCode=bada02php?pCode=history



2021 바다미술제 참여 작가 김경화의 작품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Narratives from the Hadal Zone> 설치 과정 (출처: 송지영)



2021 바다미술제 참여 작가 셰자드 다우드(Shezad Dawood)의 작품
<인류 판게아 AnthropoPangaea> 반입 상태 확인 과정 (출처: 송지영)

또 다른 바다미술제의 특징으로는, 이 전시의 출품작들은 오직 미술제 참여를 목적으로 제작된 새로운 작품들이며, 전시 폐막과 함께 파기된다는 원칙이 있다. 참여작가들은 전시의 배경이 되는 바다와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해양 환경 요소들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해하여 장소 특정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탈바꿈시킨다. 대부분의 작품은 바닷가에 설치되기 때문에 비바람, 파도, 모래 지반의 침식 등을 견뎌내면서 매일 상태가 조금씩 바뀐다. 따라서 어제와 오늘 보는 작품의 모습이 다르다는 관객으로서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전시 장소 현장 답사와 참여작가 후보군 조사 및 섭외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파견되어 해당 업무에는 참여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해외 작가 국내 초청 업무, 부산을 방문하는 타지역 작가들의 일정 관리 업무, 전시 야외 홍보물과 작품 캡션 제작 업무, 도록 편집 과정에 두루 참여할 수 있었고 그동안 궁금했던 대형 국제교류 전시의 테두리 밖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작가들의 부산 방문에 제한이 있었고, 전시 준비 과정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전년도 부산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를 경험한 전시팀과 설치팀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었다. 실습 과정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해외의 예술가들과 어떻게 상호 소통하고 전시를 구현하는지, 그리고 국제 교류 전시에서의 기획자 역할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관객과의 대면이 중요한 예술 행사가 코로나 이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21 바다미술제 참여 아티스트 그룹 포레스트 커리큘럼(Forest Curriculum)의 작품 <유랑하는 베스티아리 An Itinerant Bestiary> 설치 과정 (출처: 송지영)

행사개요

행사명 2021 바다미술제 Sea Art Festival 2021
행사기간 2021.10.16.~11.14.
행사장소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일대
홈페이지 www.busanbiennale.org

송지영

서울과 런던에서 미술을 공부하였고 2021년 부산 바다미술제 전시 코디네이터 파견 실습을 거쳐 현재 창작자로서 작품 활동과 전시 기획을 병행하는 길을 탐색하고 있다.

이메일 jsong2499@gmail.com

TURN THE PAGE!
우리 모두의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

심지윤 | 강릉국제영화제



배롱야담-어디로든 갈 수 있는 힘, 바이크를 좋아하세요?(10.24.) 모습 (출처: 심지윤)

강릉국제영화제는 2021년 올해 3회차를 맞은 비교적 신생 영화제로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대폭 축소되어 진행된 반면, 올해는 전면적으로 다채로운 대면 행사들이 야외극장 및 행사장 그리고 강릉시 일원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영화제가 진행된 약 10일 동안 다양한 섹션에서 수급된 영화들의 상영과 관객 이벤트는 물론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향의 도시 강릉'이라는 지역의 이미지에 맞춘 여러 문학 프로그램들, 학술 포럼 또한 진행되었다.

2021년 강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영화제를 포함한 개인의 문화생활 그리고 모든 이들의 삶의 양식이 현재의 제한적 상황에 안주하기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TURN THE PAGE!'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영화를 만들고 관람하는 모든 이들이 만나 교류하며 영화관이 제공하는 생생한 영화의 감동을 나누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현장성'에 집중했다는 점도 인상 깊다. 내가 담당한 '배롱야담' 역시 현장에서 영화 전문가들과 관객이 만나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으



영화제 토크 프로그램 배롱야담 진행 모습 (출처: 심지윤)



배롱야담-SF의 광활한 세계, 종이와 스크린 사이(10.23.) 모습 (출처: 심지윤)

로 마련되었고, 야외 행사인 '책마당'과 '책의 길' 또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성을 더했다.

특히 '배롱야담'은 국내 문인들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SF, 바이크 여행, 음식, 사회, 각본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영화와 같은 맥락으로 바라본 총 6회차의 토크 프로그램으로, 강릉시 내 몇몇 개인 책방과 카페, 공공문화기관에서 진행되었다. 총 11명의 게스트와 약 150명의 관객들이 한 공간에서 대담을 나누고 영화를 통해 문학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과 행사의 준비부터 진행까지 담당한 매니저였던 나는 관객으로 참여하여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웃음과 게스트와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흥미로운 눈동자들이 그 아쉬움을 대신하는 위로와 보람이 되었다.

배롱야담과 같은 강릉국제영화제의 여러 프로그램들과 상영 영화들은 우리 시대가 지나온, 혹은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



배롱야담-한국 영화에서 길을 잃은 한국 사람들(10.30.) 모습 (출처: 심지윤)

기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영화제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한 모든 스태프들의 노고는 위 언급한 작가들의 대담, 작품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답에 가까워지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 강릉이라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색깔을 잘 드러내는 문화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접근성을 높이고 영화제에 대한 경계는 낮추는 역할을 했다.



책마당 전경 (출처: 심지윤)

때로는 영화제가 영화인들의, 영화인을 위한 축제로 비친다 해도 결국은 관객의 태도와 그들의 감상이 가장 큰 영화제 성공 요점이다. 즉, 예술 장르이자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아우르는 영화제는 영화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영화에 대한 깊은 혜안이나 통찰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느끼며 참여하는 관객들의 감상과 이야기가 그들 지역의 문화이자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을 때 영화제는 그 역할을 참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제를 준비하다 보면 국내외 게스트 수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들이 영화제를 방문하는 것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관심사가 듣는 이들과 영화계에 색다른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의 영화인, 관객과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이 영화제가 국제문화교류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주된 과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담당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며 고민을 하다 보니 스스로 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제를 통해 보고자 하는 메시지와 영화제의 맥락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어쩌면 국제문화교류는 넓은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화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실습 기간 동안 스스로의 자질과 문화예술적 관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다. 꾸준히 많은 공부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른 환경, 다른 관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영화와 같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응원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현하는 사람이고 싶다. 외국에서 예

술과 축제 경영을 공부한 나에게 강릉국제영화제 실습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이자 실제로 그 일부분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는 영화라는 장르에 제한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요소들을 개인의 삶과 사회에 재미나게 녹여 낼,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즐거움과 동적인 삶의 리듬을 만들어 낼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든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책의 길 스탬프 투어 (출처: 심지윤)

행사개요

행사명 강릉국제영화제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행사기간 2021.10.21.~10.31.
행사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강릉 CGV, 명주예술마당 및 강릉시 일대
홈페이지 www.giff.kr

심지윤

영국에서 Arts and Festivals Management를 전공하고 국제문화교류의 다양한 방면을 공부하며 탐색하고 있다. 예술학을 공부하며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공간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tlawldbs58@gmail.com

Let's Turn the Page

조아란 | 강릉국제영화제



폐막식 시상 (출처: GIFF 공식 홈페이지)

어릴 적부터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너무 좋아했고 성인이 되어 다양한 페스티벌에 자원활동가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해오면서 대중들에게 콘텐츠를 소개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기획자라는 꿈을 키워 왔었다. 이후 유학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그 꿈을 잊고 지내게 되었지만, 한국에 귀국한 이후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공고를 보고 그간 갖춰온 국제적 역량 발휘와 기획자라는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직접 국제적 페스티벌에서 실습을 하며 훈련을 받고 실무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국제문화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체험하며 나 자신의 앞날에 대한 생각 정리도 하고 싶었다. 공고에 난 페스티벌들의 특징과 업무 등을 각각 비교하며 가장 적합할 것 같은 강릉국제영화제를 1지망으로 지원하였고, 배정을 받게 되었다. 영화를 항상 좋아하고 즐겨보았기 때문에 영화제라는 행사가 아주 흥미로웠다. 비록 아트필름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이 기회로 더 잘 알고 싶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2021년으로 제3회를 맞는 비교적 신생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작지 않아 올해는 총 10일간 100편이 넘는 영화를 소개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의 슬로건은 'Turn the Page!'로, 힘겨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책장을 넘기듯 새로운 삶, 새로운 단계로 도약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슬로건처럼, 2020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취소해야했던 제2회 영화제와 달리, 2021년에는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한풀 꺾이고 관련 규제들도 완화되면서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오프라인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획된 다양한 행사에 따라, 중요한 필수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외초청도 진행하게 되었다. 바로 이 해외 게스트 초청 업무에 배정이 되었고, 개막식과 폐막식, 포럼, 관객과의 대화 등 영화제의 주요 행사들에 참여할 해외 감독들과 해외 유수 영화제들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때 필요한 업무들을 진행했다.

*GIFF 강릉국제영화제 공식홈페이지(https://www.giff.kr/kor/page/identity.php)



개막작 Strawberry Mansion 감독 Albert Birney와 관객들 (출처: GIFF 공식 홈페이지)



관객과의 대화 진행 장면 (출처: GIFF 공식 홈페이지)

실습을 막 시작하고서는 '교육생' 또는 '실습생'이라는 타이틀에 쭈뼛거렸던 것 같지만, 이내 다른 팀원들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업무에 직접 다 참여하게 되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실습생이라서 내가 조금 덜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프로그래머님이나 국장님도 나의 의견, 공지 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반영해주셨기에 일을 배움과 동시에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출국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했다. 직접 관련부처 담당자, 방역 당국 등과 연락을 취하여 정보를 모으고 팀원들과 프로그래머님께 보고하는 것부터 내 본격적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초청 대상 게스트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입국절차를 위한 서류준비, 한국 방문 시 필요한 모든 것들의 예약,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직접 게스트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이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수 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든 업무를 진행해나갔다. 해외 거주 경험이 많고, 타문화 출신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수월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빠른 회신을 원하는 사람, 느긋한 사람, 시차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등, 상황과 사정은 사람마다 다른 가운데, 필요한 서류나 정보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는 데 늦어지지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출처: GIFF 공식 홈페이지)

않고 서로 기분이 상할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소통을 해야만 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했다. 평소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워진 해외초청 업무였고, 나의 실수 하나에 중요한 해외 게스트가 입국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압박감도 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책임감 있게 해내고 싶었다.

영화제가 가까워질수록 업무는 바빠졌고, 내가 직접 초청한 게스트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좀 더 실감이 났었던 것 같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과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면서도 게스트들은 이를 모르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비록 시간이 맞지 않아 직접 인사하지 못한 게스트도 있었지만, 정말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게스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영감과 동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열흘간의 영화제가 막을 내리며 무사히 큰 사고나 확진자도 하나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돌아가는 해외 게스트들로부터 많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기분 좋게 내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네 달간의 실습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실습이 모두 끝난 지금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이다. 이미 '한류'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는 콘텐츠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이미 인기가 많은 한국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는 아직 생소한 웹 기반 콘텐츠들의 진출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 국제문화교류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번 실습과 더불어 좀 더 경험과 역량을 쌓아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도, 시국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어 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여러 의미로 고립되고 단절되어있던 우리에게 강릉국제영화제가 "Turn the Page!"라고 외쳤듯이, 내 삶의 페이지도 한 장 넘기고 도약하고자 한다. 또 다른 시련이 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강릉국제영화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행사개요

행사명 강릉국제영화제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행사기간 2021.10.22.~10.31.
행사장소 강릉시 일원
홈페이지 www.giff.kr

조아란

한국에서 문화콘텐츠 융합전공과 중국어문학과 학사 전공 후 독일에서 중국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자 한다. 그간 쌓아온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즐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나가고 싶다.

이메일 chociocho@naver.com

의미를 위해 비워둔 자리

염시정 | 서울국제작가축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강연 (출처: SIWF)

문화예술 분야의 일을 시작한 후로 나는 가끔씩 20대 초반의 한 기억을 환기하고는 한다. 그날은 가을의 초입이었고, 나는 내가 처음 기획자로 참여했던 연극 프로덕션의 공연장 앞이었다. 혼자 티켓부스를 마감하고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에 문득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조적인 생각에 빠졌다.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는 예술가의 창작을 돕는 일이 즐겁고 벅찼는데 티켓을 발권하고 관객을 안내하는 '실무'를 하다 보니 나의 역할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의문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특히, 수많은 행정처리와 기획과 제작에 수반되는 일련의 실무들이 반복되다보면 어김없이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그 반복의 과정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NEXT 집중양성과정의 일환으로 파견된 축제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였다. 2021년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는 10월 한 달 동안 자각-Awakening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개·폐막 강연을 포함하여 시, 장르문학 등 전통적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포스터 (출처: SIWF)

인 문학성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부터 환경, 젠더, 미래세대 등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 대담 및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연중행사로 한국문학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낭독하는 교차언어낭독회와 축제 10회를 기념하여 그간 축제에 참여한 작가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단편영화 4편을 제작하여 선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실습 동안 축제프로그램의 홍보업무를 담당했다. 홍보업무가 의례 그렇듯 업무의 범위는 넓고 업무를 통해 만나는 대상은 많다. 축제 굿즈를 제작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업체와 메일을 주고받고, 참가작가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와 유관기관들에 홍보 제안서를 발송하여 유기적인 홍보협력을 도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실무과정은 결국 더 많은 수용자에게 유효한 행사정보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축제를 방문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올해 진행된 많은 축제처럼 서울국제작가축제 역시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객들이 꽤나 긴 시간을 화면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생각에 도달했다. 어떤 생각을 가진 관객이 화면 앞에 있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했지만 그만큼 즐거운 일이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했던 올해 축제였지만, 이를 하나로 관통하는 경향에 대해 나는 '일상에 대한 자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작년 한 해, 바이러스로 인해 장르를 초월하여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생경한 것들이 주요한 담론이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의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위협에 가려져 있었던 일상을 깨우고 다시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은 그 위협 속에서도 계속 살아갈 의지를 표명하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따스하지만 날카롭게 '자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오는 위안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위안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큰 것이라, 정작 주어진 삶에 대한 '자각'은 뒷전으로 밀어둔 것은 아니었는가 하며 반성을 하기도 했다.



토론프로그램 <작가들의 수다> '바디시그널' (출처: SIWF)

내가 이번 축제에서 얻은 위안과 반성 끝에 서두에서 말한 과거의 일화가

생각났다. 특히, 올해 개막강연에서 한강 작가님이 낭독한 아래의 발제문을 들으며 과거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사람들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문학 속에 길이 있다면, 그건 매끈한 표면에 그어진 표식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우묵하게 파인 깊이를 가진 공간일 겁니다. 신문의 단신 한 줄, 거리에서 들은 한마디 말, 사진 한 장, 한 조각의 꿈과 기억과 예감에서도 문학은 시작되고, 납작하게만 보이던 사건들과 사물들과 인물들 속에서 굴곡과 깊이와 내부를 상상하고 발견해내니까요. 그 깊이 아래에서 '깨어남'의 순간이 전기 스파크처럼 튀어 빛날 때, 읽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도 생명의 전류가 옮겨 흐르게 됩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우묵한 길이-어떤 새로운 태도가-생겨나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미세하게 또는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책을 읽기 전의 자신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연결된 우리가 깨어날 때」, 한강 中 일부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여전히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불현듯 '의미의 자리'라는 말이 떠올랐다. 축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작가들로부터 시작한 작품이 가진 무형의 의미가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그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란 당장은 독자들의 마음에 자리하지 못한 '의미'일지라도 그 '깨어남'의 순간을 기다리며 의미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고 예쁘게 꾸며두는 일이라고 말이다.

행사개요

행사명 서울국제작가축제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행사기간 2021.10.8.~10.24.
행사장소 온라인
홈페이지 www.siwf.or.kr

염시정

문학과 영화, 공연예술에 관심을 가진 기획자.
이메일 jeremaximum@gmail.com

내 삶의 방향성을 찾아준 자라섬에서의 시간들

이지예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재즈아일랜드 전경 (출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어려서부터 유달리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평생 꿈이 세계여행이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프로그램의 애청자일 만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던 내 학창 시절의 꿈은 공연 기획자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때는 국제교류라는 것에 대해 몰랐고, 그냥 막연하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 해외 투어를 다니며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그랬던 나는 뜬금없게도 대학에서 중국어와 경영을 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연 기획자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짙어졌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아닌 내 꿈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내 꿈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NEXT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던 그 의문을 해결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감사하게도 자라섬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나를 실습생으로 받아주었다.



페스티벌 사무국 스태프 단체사진 (출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전 스태프 단체사진 (출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021년 올해 18회를 맞이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많은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이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10월 9~11일에 개최되기로 한 페스티벌이 11월 5~7일로 연기되었지만, 코로나 시대 1호 대형 페스티벌로서 성공적으로 페스티벌을 마쳤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나는 프로그램팀에 소속이 되어 NEXT 집중양성과정 실습을 진행했다. 내가 맡게 된 주 업무는 아티스트 케어였다. 아티스트와 연락을 하며 페스티벌 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고 받은 정보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굵직한 업무들은 해외 아티스트 자가격리 면제신청, 페스티벌 초청 아티스트 대상 안내메일 전달 및 자료 정리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기실 및 케이터링 존 조성과 아티스트 방역이었다.

실습을 진행하며 인상 깊었던 업무들이 몇 개 있다. 첫 번째는 해외아티스트 자가격리 면제신청이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해외 유명 재즈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으로도 유명해서 코로나 이전의 페스티벌 때와 같이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해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격리 면제신청이 반려되어 해외 아티스트가 내한하지 못했지만, 격리 면제신청을 진행하며 국제교류 업무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해외 아티스트를 국내로 모시지 못한 게 매우 아쉬웠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 바이오를 작성한 것이다. 아티스트 바이오는 공식 홈페이지, SNS 홍보 등에 사용이 된다. 사실 나는 글을 그리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처음 바이오를 작성할 때 매우 걱정했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바이오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스스로 생각했던 나의 한계를 넘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

세 번째는 '자라섬 체조'이다. 페스티벌 동안 공연 시간 외에는 항상 전광판을 통해 자라섬 체조가 흘러나온다. 어린이 친구들은 자라섬 체조를 기대하며 페스티벌에 온다고 할 정도로 마니아층이 있는 체조이다. 그리고 감사하게



재즈아일랜드 선우정아 공연사진 (출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도 올해 자라섬 체조의 안무를 내가 담당해 제작하게 되었다. 내가 만든 안무가 자라섬을 찾는 많은 관객분에게 보인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 안무를 보여줄 수 있겠냐는 생각에 즐겁게 안무를 제작했다. 그리고 페스티벌 동안 자라섬 체조가 나올 때마다 보고 따라 추는 관객들을 보며 실습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아갈 수 있었다.

마지막은 페스티벌 그 자체이다. 사실 페스티벌 직전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다. 10월 예정이었던 페스티벌이 코로나 확진자 폭등으로 인해 11월로 밀렸고, 11월에는 페스티벌 이틀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급하게 환불 및 변경된 방역 사항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런 몇 달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모든 게 불안정하고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무국 직원들 모두 싫은 소리 하나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이 결실을 보는 날이었다. 텅 빈 자라섬에 무대가 올라가던 그 광경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자라섬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꾸려갈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내가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더 이상 내 꿈을 향한 갈증만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이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찾게 되었다. 앞으로 공연기획자로서, 국제교류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 기획을 통해 건강하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기획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행사개요

행사명 자라섬재즈페스티벌 The 18th Jarasum Jazz Festival
행사기간 2021.11.5.~11.7.
행사장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 및 음악역1939 내 M스테이션 뮤직홀
홈페이지 www.jarasumjazz.com

이지예

학창 시절의 꿈은 '공연 기획자'였다. 하지만 대학에선 중국어와 경영을 전공했다. 학창 시절의 꿈을 실현하고 전공도 살리고 싶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집중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실습은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획자가 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메일 222apple222@naver.com

상상하고, 관찰하고, 정리하고

홍혜원 |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자라섬 일대 답사 (출처: 홍혜원)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인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 NEXT 집중양성과정 실습생으로 참여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한가지 목표를 세웠다. 홍보팀의 전반적인 흐름과 업무를 꿰뚫고 오자는 것이었다. 대학교에서 디자인학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홍보 업무에 대해 모르는 면이 많았지만, 자라섬에서의 4개월 여정은 이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되는 온라인 흐름에 발맞춰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였기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모니터링하며 누구보다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내부에서 새롭게 결정되는 사항을 외부에 공지할 때는 관련 기사들, 타 페스티벌을 참고하며 미리 제작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였다.



제18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체조 영상 준비 (출처: 홍혜원)



제18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출처: 홍혜원)

이외에도 페스티벌을 만들어나가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글의 힘이었다.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홍보가 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기에, 잘 쓴 글 혹은 감동을 주는 글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변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18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마무리되었다. 9월 말 확진자 급증으로 개최 일정이 연기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났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라섬재즈센터 식구들의 도움으로 맡았던 파트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기분 좋고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4개월의 자라섬 여행은 끝이 났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계속 일할 기회를 주셔서 홍보 매니저로서 '2022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과 디자인,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홍보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라섬에 모이고 널따란 잔디밭에 누워 재즈와 함께 휴식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물 받으면 좋겠다.



제18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출처: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행사개요

행사명 자라섬재즈페스티벌 The 18th Jarasum Jazz Festival
행사기간 2021.11.5.~11.7.
행사장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일대 및 음악역1939 내 M스테이션 뮤직홀
홈페이지 www.jarasumjazz.com

홍혜원

대학교에서 디자인학 전공 후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국제교류 홍보팀 실습을 인연으로 홍보 매니저로 입사했다. 취미는 음악 듣기, 영어 공부하기이다. 자라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로 할 수 있어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메일 hewoni68@gmail.com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What makes me animate

조수빈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로그램 클래스 <안녕! 모든 에반게리온!> 스페셜 토크_ 김하루, 채민지 성우 (출처: 조수빈)

NEXT 집중양성과정 공고문을 본 것은 졸업을 앞두고, 여느 때처럼 누워서 빈둥대고만 있던 날이었다. 마감일 하루 전의 공고. 평소라면 어차피 이건 안 되겠다며 다시 돌아누웠을 테지만, 그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홀린 듯이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이 떠밀거나 강제되지 않으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던 내가, '이제는 나도 혼자 움직여 봐야지' 하는 생각하며 지원한 첫 실습, 첫 시도였다.

실습했던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하 BIAF)은 2021년 올해로 23주년을 맞는 아카데미 공식 지정 영화제이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서브컬쳐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BIAF는 '애니메이팅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애니메이션으로서 다루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예선 및 본선에서 경쟁하고, 작년 수상 감독 및 프로듀서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BIAF는 이러한 경쟁 작품 상영과 함께 스페셜 토크와 메이킹 오브 등



단편 심사 코디네이터 활동 (출처: 조수빈)



BIAF2021 개막식 (출처: 조수빈)

의 프로그램 클래스, VR 체험존, 특별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관객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넓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을 무관중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해외 심사위원들도 초청할 수 있었다. 사무국에서 나의 주 업무는 이중 단편 심사위원들을 서포트하는 것과 프로그램 클래스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첫 한 달간은 거의 스크리닝 위주였는데, 정말 많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접했다. 이번 BIAF에서 상영하는 경쟁작들은 물론이고 지난 수상작, 현 심사위원들의 작품까지 장단편을 합쳐서 100편에 가까운 작품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처음에는 앉아서 만화만 보는 정도야 어려운 일도 아니겠거니 했는데, 형식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처음 접하는 것들뿐이라 그간 내가 알고 있던 애니메이션의 범위를 넓혀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형식, 언어의 작품을 폭넓게 접하고 나니, 첫 영화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서도 더 넓은 시야와 지식을 활용해나갈 수 있었다. 스크리닝 후에는 상영작들의 제목과 시놉시스 번역 작업을 맡았는데, 작품을 보기 전과 후의 번역 초안이 달라진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경험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번역이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작업이라는 것을 새로이 느꼈다. 메인 카탈로그 등에 들어갈 내지나 감독 인터뷰의 번역 작업 등과 함께 프로그램 클래스 <안녕! 모든 에반게리온 스페셜 토크>의 진행도 맡게 되었는데, 실습생으로서 하나의 큰 클래스를 섭외부터 진행까지 온전히 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컸으나 같은 프로그램 팀원들의 도움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BIAF2021 메인 포스터
(출처: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첫 시도는 언제나 아쉬운 법이라지만, 다음번에는 더 발전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먼저 들 정도로 새롭고 두근거리는 경험이었다.

영화제 기간은 5일이었지만 게스트 의전 업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행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는데, 내 생애 가장 빠르고 열심히 지낸 생생한 일주일이었다. 심사위원들과 동행하며 스케줄을 관리하고, 심사위원의 일정이 끝나면 관객 투표나 특별 상영 준비 같은 상영관의 일도 틈틈이 도왔다. 개막식 동선을 점검하고, 심사 회의에 참관하여 회의록을 정리하고, 프로그램 클래스 진행 및 미팅 준비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팀원들의 협력과 보조를 통해 실수 없이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천 CGV와 게스트 숙소, 사무실을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직도 그 길이 눈앞에 생생하다. 일주일간 아침부터 밤까지 동행했던 심사위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외투 질감까지 읊어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매 순간에 충실하게 움직였던 게 얼마 만이었는지.

애니메이션에는 요행이 없다. 잠깐 놓아둔 카메라에 우연히 멋진 순간이 저절로 포착되거나, 배우의 참신한 즉석 애드리브가 들어가는 일도 없다. 애니메이팅은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어떤 것을 두고 어떤 것을 살릴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BIAF에서의 5개월은 그야말로 나를 애니메이팅하는 과정이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것들을 현장에서 기획부터 보완, 실행까지 하나하나 경험해볼 수 있었고,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믿고 맡겨 주셔서 더욱 넓은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실습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다양하고 소중한 인연들과 만나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기뻤다. 시도해보길 잘했다, 만나길 잘했다, 이야기하길 잘했다, 움직이길 잘했다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즐거움과 성장을 온몸으로 겪을 수 있던 감사한 시간이었다.

애니메이션은 한 동작을 구성하는 프레임이 세세하고 또 많을수록 움직임이 매끄러워진다. 이처럼 나 또한 나의 매 순간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채워나가고자 한다. 더 매끄럽고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그리고 대담히.



단편 심사 회의 (출처: 조수빈)

행사개요

행사명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행사기간 2021.10.22.~10.26.
행사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부천 CGV 등
홈페이지 www.jarasumjazz.com

조수빈

경희대학교에서 언론정보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한국어 도우미, 교환학생, 공연 통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NEXT 집중양성과정을 통해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프로그램팀 및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으며, 함께 즐기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 기획을 목표로 폭넓은 분야에 도전 중이다.

이메일 whtnqls23@naver.com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NEXT Placement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해외파견 기관	파견기간
강지수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2021.9.1.~2021.12.31.
신정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021.9.6.~2022.1.6.
윤현진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음악 페스티벌	2021.10.15.~2022.1.14.
정혜성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2021.10.26.~2021.12.24.
추수연	영국 XTRAX	2021.10.4.~2021.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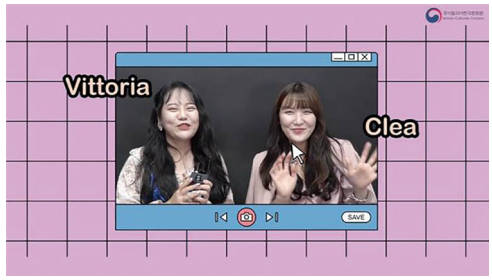
오징어게임이 있기까지, K문화가 앞장서기까지

강지수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이탈리아에서 마치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돌연 귀국한 후 지독한 이탈리아를 향한 그리움에 빠져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1/3을, 그것도 가장 반짝이고 예쁜 나이대를 모두 이탈리아에서 지냈으니 고향에 돌아오고 난 후에도 그곳이 그리웠다. 그러던 중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공모한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고, 아쉽지만 펜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인턴십'을 참여하게 되었다.

비대면 인턴십이 시작된 후 소통한 기관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이었다. 이탈리아 국민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같이 나누고자 2016년 로마에 개원한 한국문화원은 5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언어, 음식, 전통예술뿐만 아니라 K-POP이나 K-BEAUTY 쪽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활동 통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기관이었다.

처음 맡겨진 과제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번역 및 영상 제작 업무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래동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제안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현 오페라 가수로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한 K-POP 노래 강좌를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클래식 성악가로서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쉽게도 K-POP에 대한 클래스를 맡을 수는 없었다.



이탈리아문화원 뷰티영상 제작 (출처 : 강지수)



한국 드라마 속 핫 뷰티 아이템 촬영 (출처 : 강지수)

두 번째로는, 뷰티 크리에이터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K-BEAUTY 관련 콘텐츠를 영상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제안받았다. 이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의 뷰티 분야 담당자인 박인혜 실무관과 소통하며 본격적인 비대면 파견 활동이 시작되었다.

2021년은 그야말로 K-Culture의 해였다. 달고나, 오징어게임, 각종 챌린지들, 넷플릭스 속 한국 작품들의 흥행…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의 이러한 관심 지속을 위해 '오징어게임이 있

기까지'라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라마 '오징어게임' 하나의 흥행이었겠으나 이 속의 내용과 콘텐츠는 한국의 것들이 아니겠는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과 같은 한국의 게임들과 달고나, 단팥빵 등과 같은 한국의 먹거리들, 그리고 한국 배우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한국 연예계 즉, K-뷰티로 이목 집중되었다.

K-Food, K-Pop, K-Beauty라는 단어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즉 K-문화가 앞장서기까지 대한민국은 수도 없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발견해왔다. 이제 더 이상 전통문화만으로 한국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바야흐로 세계 속에서 주도적 K-문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K-뷰티를 앞세워 만들 수 있는 창작물이 고민 끝에 결정한 첫 번째 콘텐츠는 #한국의뷰티HOT아이템 TOP5 였다.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중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골라보았다. 드라마 속 배우들이 항상 사용한다는 밤(Balm) 제형의 화장품이라던지, 한국의 연예인들은 항상 머리가 길고 예쁜 컬링을 유지하는데 실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가발과 같은 국내 뷰티 시장의 꿀팁을 모아서 리뷰 겸 소개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 제작하였다. 또 해외에서 선호하는 K-POP 아이돌의 화장 기법을 따라 연출한 커버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하여 K-뷰티 특유의 팁들을 소개하였다.

인턴십 동안 문득 이탈리아에서 12년간 살던 때가 생각이 났다. 유럽은 뷰티 시장이 매우 좁고 열악하여 한국의 화장품 기술력과 메이크업 실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면 가방 한가득 챙겨왔던 것이 한국의 뷰티 제품들이었다. 한국의 제품들을 이탈리아 친구들이나 교수님들께 선물하면 모두가 입을 모아 찬사와 함께 제품 구입을 희망했던 기억이 있다. 사실 이 전부터 한국의 뷰티 문화는 매우 앞서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K-뷰티를 문화의 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선두적 교류 영역이 생긴 셈이다. K-문화의 강세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왔고 그것이 드디어 여러 매개체를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어떤 것이 매개가 되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알려지기까지의 기초가 탄탄하기에 앞으로 교류할 영역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K-POP 아이돌 커버 메이크업 (출처 : 강지수)


K뷰티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 제작 (출처 : 강지수)

팬데믹의 영향이었지만 비대면 인턴십 덕분에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뷰티 문화가 더욱 쉽게,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인들은 매우 부지런하다. 한국의 미디어는 매일 발전하고 새로움을 추구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늘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세계 속의 작지만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K-문화'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것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이 노력들을 더욱 세상에 퍼

뜨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들의 역할이 아닐까?

파견기관

기관명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in Italy
소재지 로마 Rome, Italy
설립연도 2016년
홈페이지 italia.korean-culture.org

강지수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 음악원에서 오페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문 뷰티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K뷰티를 주도적으로 알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며 영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 K뷰티뿐만 아니라 K푸드 K문화 등 여러 분야로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다.
이메일 jsk0807@naver.com

프랑스의 한국산 청개구리

신정민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한국에서 불어불문과를 졸업했다고 하여 불어를 잘 구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공한 언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예술계에서 일하고 싶은 동경으로 프랑스행을 택했다. 대학원에 입학하니 매주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을 견학하며 프랑스의 문화유산과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었다. 막상 이렇게나 가까이 서양미술을 공부할 수 있게 되니 나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예술에 대해선 얼마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프랑스의 예술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나라 예술에 관한 호기심과 한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점점 한국 공예에 관심을 가지며 문화재청에서 발행하는 '우리 문화' 잡지를 매월 호 챙겨보고, 공예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촉각을 세웠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역시 내 호기심을 충족해준 기관이기도 했다. 대학원 졸업과 함께 한국 도자기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전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인들을 타깃으로 했기에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의 협업이 절실했다. 연락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기관과의 협업은 높은 장벽으로 느껴졌다.

몇 달 후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NEXT 해외파견 모집 공고를 발견했을 때, 한국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19년에 확장 이전하며 한국어 강좌, 한식 문화 체험, 공연과 전시 등 문화원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기관 내 유치한 공연장에서 매주 새로운 공연을 상연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다. 파리에서 무료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은 한국문화원밖에 없을 것이다. 드니 성호 기타리스트 퀸텟과 한국 판소리 전문가들의 공연을 본 프랑스인들이 감명받는 것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한글특별전 (출처: 신정민)

문화교류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끊



한글특별전 (출처: 신정민)

임없이 접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리 문화도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평소 가장 큰 관심사는 시각예술이기에, 내 배경 지식은 미술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턴십 동안 무용가, 음악가, 소리꾼들의 공연을 보며 미술 이외의 분야에 눈을 뜰 수 있었고 한국인으로서도 몰랐던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사물놀이, 명절에 먹는 '배숙', '율란'과 같은 전통 한과 등은 한국에서도 쉽게 접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한국문화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고, 공식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파리를 중심으로 홍보됐다. 나는 '한국문화축제'에 속한 행사를 대부분 지원했는데, 특히 '한글 디자인 : 형태의 전환', 그리고 안은미 안무가의 현대 무용 공연 '1분 59초' 프로그램과 연계한 멀티미디어 전시인 '은미고온(2021)', '춤추는 할머니들(2010)'의 미디어 매핑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여름 유네스코와 함께 개최한 미디어 매핑 전시에서 성공적 성과를 거두어 문화원 자체적으로 '입체적 상상'이라는 미디어 매핑 전시를 열었고, 이는 전례 없는 관심을 끌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이러한 미디어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미디어 관련 전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후 주관하는 행사에 미디어 매핑 전시를 연계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렇게 미디어 매핑 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물과 기계 설치 방법, 매핑 종류 등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다.



안은미 미디어매핑, 문화원 외관 (출처: 신정민)

그동안의 경험이 미술 분야에만 국한됐었다면 이번 인턴십을 통해 음식, 음악, 공연 등 한국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교류 기관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인턴십을 끝낸 후의 계획은 프랑스에 계속 체류하며 현지 예술 기관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공예와 도자기를 프랑스에 소개하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양국의 장인들과 작가를 소개하는 공예 매개 인력이 되고자 한다.



안은미 미디어매핑, 문화원 공연장 (출처: 신정민)

파견기관

기관명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in France
소재지 파리 Paris, France
설립연도 1980년
홈페이지 www.coree-culture.org

신정민

파리 에꼴 IESA 에서 아트마켓-전시기획 석사를 전공했으며 졸업 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미술관)에서 한국 도자기 VR 전시를 기획해 한국과 프랑스에 소개했다. 다양한 프랑스 갤러리(보석, 오세아니아미술, 현대미술)와 파리 아트페어에서 인턴 경험이 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초까지 4개월간 NEXT 프로그램을 통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인턴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며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예술 교류를 경험했다. 앞으로도 한국-프랑스의 공예, 현대미술 작가들을 각 나라에 소개하는 매개 인력이 되고자 한다.
이메일 jungmin.shin@icloud.com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왕궁을 품은 도시

윤현진 | 그라페네크 음악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왕궁을 품은 도시

오스트리아에서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운 미관으로 손꼽히는 작은 도시 그라페네크는 성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세 왕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라페네크의 성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넓은 정원은 자연과 어우러져 멋진 장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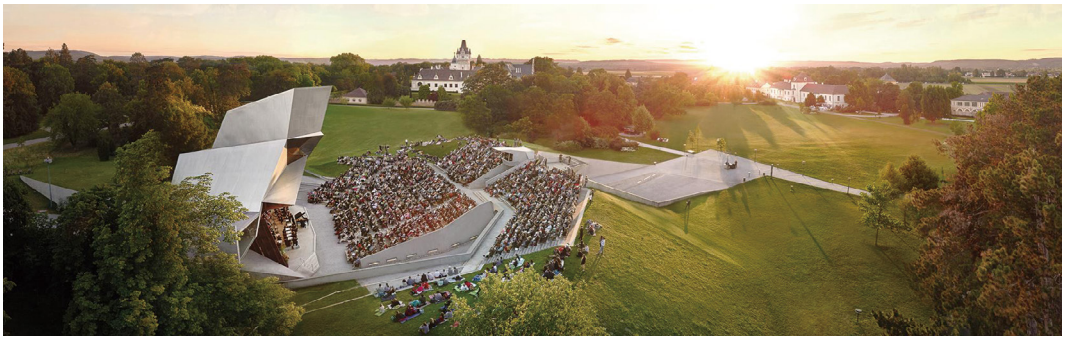
이곳 그라페네크에는 2012년과 2016년 2회 방문한 바 있는데 그라페네크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의 작곡과와 지휘자를 위한 워크숍 'Ink Still Wet'에 선발되어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여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라페네크는 도시라기보다 작은 왕국과도 같은 느낌의 장소였다. 이곳 그라페네크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그라페네크 음악 페스티벌(Grafenegg Musik Festival)이 개최된다.



그라페네크 성_2012.08. (출처: 윤현진)



그라페네크 성 정원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그라페네크 야외무대 Wolkenturm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고성(Old Castle)'과 '자연', 두 가지의 테마와 함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은 2006년 시작되었다. 페스티벌은 시작과 함께 매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명실상부 최고의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로 급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루돌프 부흐빈더(Rudolf Buchbinder)는 세계에서 베토벤의 해석으로는 단연 최고로 정평이 난 피아니스트이다. 그의 뛰어난 예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페스티벌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빈 필하모닉,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등 유럽 최고의 관현악단뿐만 아니라 클리브랜드, 피츠버그 등 미국 탑 오케스트라들도 대거 포진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대표적 공연장인 볼켄툼(Wolkenturm)은 세계에서 가장 음향이 좋은 야외무대로 손꼽힌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그라페네크의 랜드마크이자 자랑인 본 야외무대는 여름에 개최되는 페스티벌의 정취를 한껏 더하여 주는 일등공신이다.이번 리서치는 펜데믹 상황 속 비대면 파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전의 방문 및 워크샵 참가를 통하여 페스티벌 기관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하게 가능하여 비대면 파견이었지만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본 리서치의 기관 담당은 페스티벌 사무국장인 Philipp Stein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페스티벌의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현 오스트리아의 음악 분야에 대한 경향 소개 등 아낌없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페스티벌

클래식 음악은 대부분 과거의 음악이다. 100년, 200년 전 작곡된 과거의 작품들이 현재의 연주자들에 의하여 재해석되어 연주된다. 그런고로 대부분의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깊게 고민하고 성찰하며 '창작음악', '교육' 두 가지 분야에 대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페스티벌 사무국장 Philipp Stein은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창작음악 분야에 대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상주작곡가(Composer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현시대 작곡가를 페스티벌의 상주작곡가로 초빙하여 작품 위촉 및 연주, 그리고 관객을 위한 창작음악의 해설과 함께 지휘자로 직접 본인의 작품 연주를 담당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여타의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의 상주작곡가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만의 특징은 바로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워크숍 'Ink Still Wet'의 진행이다.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워크샵 'Ink Still Wet'

세계에서 유일한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Ink Still Wet'는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창작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음악인들의 교육을 위하여 캠퍼스 그라페네크(Campus Grafenegg)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주자를 위한 그라페네크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창작음악 분야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워크샵 Ink Still Wet를 운영 중에 있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Ink Still Wet 참가모습_2016.09.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Ink Still Wet 최종공연_2016.09.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워크숍 Ink Still Wet의 목표는 젊은 작곡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청중, 작곡가 및 연주하는 음악가 간의 창의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상주 작곡가가 이끄는 워크샵 Ink Still Wet의 기획 의도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로운 작품 창작을 위한 실제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전문 오케스트라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리허설하고 연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워크샵 참가자들의 작품은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워크숍의 폐막 콘서트에서 대중에게 선보인다.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본 워크샵 'Ink Still Wet'에 참여한 바 있다. 세계적 작곡가 겸 지휘자인 영국의 James MacMillan, 독일의 Christian Jost를 사사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페스티벌 상주 연주단체인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품을 리허설하고 연주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은 페스티벌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그라페네크 작곡상>을 재정하여 참가자 중 우수한 작품과 연주를 보인 참가자를 수상하였는데 필자는 심사위원 상(2위)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Ink Still Wet 최종공연_2016.09.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예술에 있어 창작은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예술 분야의 미래는 없다. 음악 분야에 있어 창작은 '현대음악'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어려움, 난해함 등의 대명사로 유독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이는 음악의 본고장 유럽 오스트리아에서도 같은 상황임을 리서치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Ink Still Wet 수상
중앙: 상주작곡기 Christian Jost_2016.09.
(출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창작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오스트리아 관객들은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과 난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상주작곡가 제도, 작곡가 겸 지휘자를 위한 워크샵 Ink Still Wet 등 부단한 노력과 투자를 해 오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가 왜 문화강국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향하여

현시대의 새로운 음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없이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는 어둡다.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관객의 수, 티켓 판매량 등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클래식 음악 분야의 모든 것을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떠한 분야에 이슈가 일어나고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에나 지원금과 예산을 부화뇌동하듯 투입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선견지명과 인내를 가지고 비인기 분야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업에는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 참여를 계기로 한국-오스트리아의 창작음악 분야, 즉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음악으로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현대음악 분야 프로그램과 중장기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자 한다.

2015년 독일 베를린에서 기획하여 진행 중인 한국창작음악 프로젝트 NMK(독 Neue Musik aus Korea의 약칭;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음악)는 유럽 무대에서는 신선하고 참신한 바탕을 가진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프로젝트 NMK는 독일 베를린, 다름슈타트 등에서의 성공적인 해외 프로젝트에 이어 2020년부터 국내 서울에 거점을 마련하여 젊은 연주자의 해외 무대 연주기회 마련 및 한국의 새로운 음악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국내 및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다.



한국창작음악 프로젝트 단체 NMK (On & One KOREA, 2021.07) (출처: NMK / www.neue-musik-korea.com)

한국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에 우리의 우수한 예술을 알리며 해외 기관과의 창작음악 분야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페스티벌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국내에도

소개, 도입하는 협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 창작음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파견기관

기관명 그라페네크 음악 페스티벌
Grafenegg Music Festival
소재지 그라페네크 Grafenegg, Austria
설립연도 2006년
홈페이지 www.grafenegg.com

윤현진

지휘자 겸 작곡가
NMK(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음악) 대표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화성시문화재단 이사
이메일 musikyun@gmail.com

봉쥬르,
굿바이, 벨기에

정혜성 |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우연히 알게 된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파견을 지원했던 이유는 하나였다. 바로 유럽 교환학생 시절 방문했을 때의 좋은 기억 덕분이었다. 브뤼셀의 아름다운 거리와 공원을 산책한 후 바라본 노을 지는 풍경이 지금도 선명할 정도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환학생을 마치며 네덜란드에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었고, 벨기에에 도착하면 바로 업무에 적응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유럽의 수도라고 불리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해외에 주재하는 여러 한국문화원들 중에서도 위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크다.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의 허브로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비롯하여 약 2,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 지사와 1,500여 개의 비정부 기관이 자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에 개원한 후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전통예술, 현대예술의 우수성을 벨기에 및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을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은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 되는 해였으므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았다. 문화원 인턴십을 시작하자마자 전시 및 공연의 기획과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문화원 내 전시 공간에 설치된 <나를 방황하게 하는 것들 (What Makes Me Wander)>展의 오프닝 업무를 지원하였다. 2022년 1월까지 진행된 이 전시는 현지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벨기에 <Bright Festival>에도 참여한 한국의 하석준 작가를 인터뷰했다. 문화원은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2021년 10월 신노이와 블랙스트링 공연, 11월 아놀드 트리오 연주회, 12월 소프라노 조수미 벨기에 앤트워프 공연이 있었고, 관람객들의 DB와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10월과 11월의 공연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헤매게 만드는 것들 전시장 (출처 : 정혜성)

전시 및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행사가 진행될 때 업무를 지원하였다. 특히 문화원 내에서 개최된 한식 경연 대회의 현장 업무와 사진 촬영을 지원할 때나, 한국 문학주간에 운영된 북 토크에 참여하여 장강명 작가를 비롯한 한국에서 방문한 작가님들을 뵈었을 때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 예술성에 대한 긍지를 다시금 느꼈다.

그리고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해외문화홍보원(KOCIS)에서 진행한 2021년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Talk Talk Korea'의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문화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공모를 받은 국제 한류 콘텐츠 중 9개 분야(K-POP 뮤직비디오, 현대 국악, 매체예술(미디어 아트), 일러스트, 순간 스냅 사진 등)에서 총 140개의 콘텐츠들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이들을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한다. 이 전시의 기획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시 설치와 진행 방향에 대해 의논하면서 전시 오픈을 준비하였다. 문화원 내 전통공간에 최신식 영상기기와 그래픽 디자인 설치를 통해 전 세계를 열광시킨 한류 콘텐츠와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시에 필요한 설치, 홍보, 운영 전반의 준비를 하였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다채로운 장르의 콘텐츠들은 무한재생형태로 편집되어 관람객들이 쌍방향 인터랙티브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원 내 전시실에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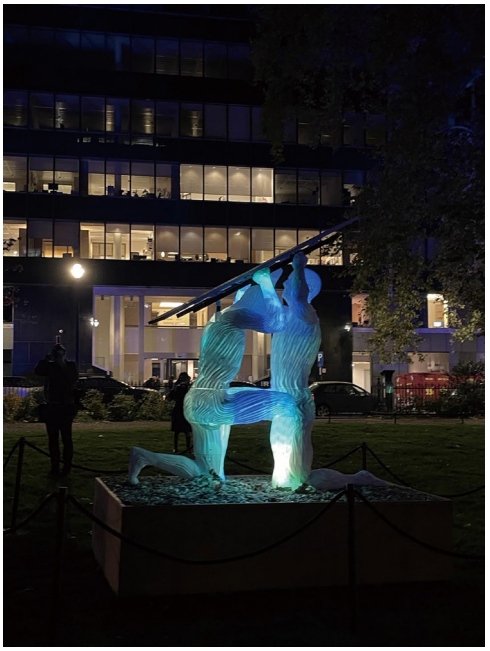


블랙 스트링 공연 사진 (출처 : 정혜성)

앞서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2021년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브뤼셀 만화박물관에서 <한국만화 특별전-한국만화의 비상>展을 오픈한 바 있다. 이 전시는 웹툰과 한국 만화의 역사, 우수성, 그리고 글로벌함을 유럽 내에 입증함으로써 열렬히 각광받았다. 이 만화 전시와 문화원 내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궁궐 특별전>의 관람객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유럽의 긍정적인 호응을 실제로 확인하고 한국 웹툽과 만화의 창창한 미래를 예감할 수 있었다.



한식 콘테스트 음식 심사 현장 (출처 : 정혜성)



벨기에 Bright 페스티벌 하석준 작가 작품 (출처 : 정혜성)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유럽 내에서 중심부에 위치하여 현지인과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영어를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벨기에의 언어적, 지리적인 특성들을 고려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와 불어, 그리고 한국어를 고루 능통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문화원의 직원 모두가 언어에 능통하고 서로 간의 협업과 소통에 대해 열린 마음이며 업무적 역량을 조율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역량이 어우러진 시너지가 문화원에서 진행해 온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지난 인턴십 시간의 성찰을 마치며, 코로나 시국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다.

파견기관

기관명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of Belgium & European Union
소재지 브뤼셀 Brussels, Belgium
설립연도 2013년
홈페이지 brussels.korean-culture.org

정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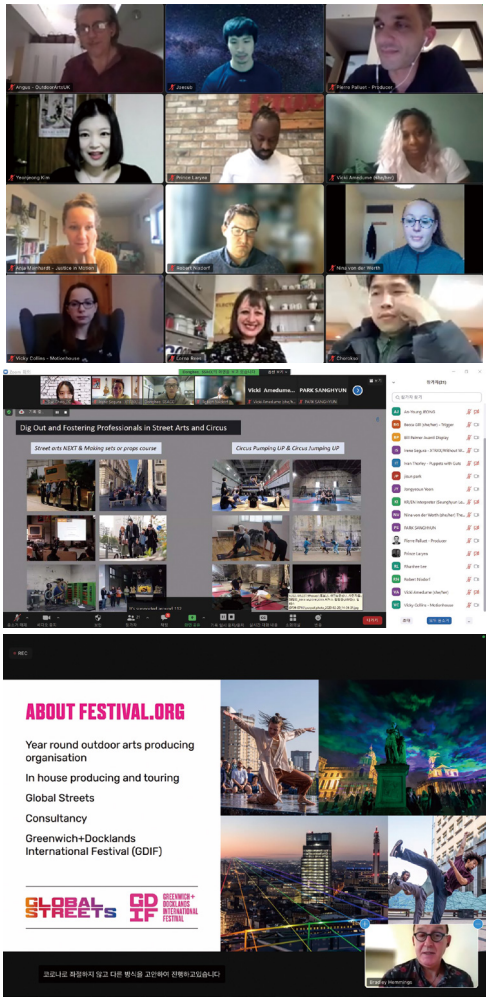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 석사 과정 수료 후, 2021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각예술분야에 선정되어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 전시 및 공연 사업 업무를 지원하였다. 책 <Fernweh>(2021)을 출간하였으며, 개인전 <빛그림자>(2021)와 단체전 <객체와 관계>(2021)와 <한여름날의 꿈>(2021), 국제전 <Concept>(2022)와 <Interaction>(2022) 등 국내외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작가 활동을 병행하며 예술 이론 연구와 큐레토리얼 직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메일 flycomet@daum.net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는 것

추수연 | 영국 XTRAX

거리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개별 예술가와의 작업이나 축제에서 국제교류를 진행해오면서 이번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파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 영국 XTRAX와의 온라인 트레이닝 워크숍은 예술가와 프로듀서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영국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XTRAX가 추진하고 있는 Platform 4: UK의 일환으로 기획된 XTRAX Global Conversations: <Korea Connections>는 영국과 한국의 거리예술가와 프로듀서를 대상으로 양국의 거리예술 작업을 접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서로의 국가 환경에 따른 조건 및 맥락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거리예술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XTRAX에서 약 3달간 한-영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Korea Connections>를 공동 기획하고 영국 거리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영국 현지에 직접 가서 작업하지는 못했다. 최근 2년간의 많은 국제교류 사업들이 그랬듯이 화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Korea Connections>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시차를 극복하고 XTRAX와 기획회의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성, 주제, 패널, 대상, 진행 방식 등을 정하고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참가자를 모집했다. 프로그램의 목적이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양국의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예술가와 프로듀서에게 유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는 소규모로 지원받아 총 27명(한국 12명, 영국 15명)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Korea Connections> 세션 현장 (출처 : 추수연)

<Korea Connections> 주제와 구성

• 주제 및 내용

- 거리예술 작품 제작 및 투어를 위한 실제적 논의
- 각 국가의 주요한 문화적 차이 및 관행
- 국제마켓에서의 공연료 책정 및 작품 홍보에 대한 조언
- 자금 조달 및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
- 한국과 영국의 주요 행사, 축제 및 지원 기관에 대한 개요
- 코로나19와 기후 비상 사태의 맥락에서 양국의 국제 투어를 위한 미래 현장에 대한 통찰력
- 양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 구성

- 1회차: 인사 및 소개_ 비공식 네트워킹 및 소개
- 2회차: 영국 거리예술 포커스_ 영국의 거리예술 소개
- 3회차: 영국 거리예술 포커스_ 거리예술 작품을 영국으로 가져오기 (토론)
- 4회차: 한국 거리예술 포커스_ 한국의 거리예술 소개
- 5회차: 한국 거리예술 포커스_ 거리예술 작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토론)

한-영 패널 의장 구성

• 영국 거리예술 포커스

- 영국의 거리예술 소개: 다니엘 코비슬리(Head of 101 Outdoor Arts Creation Space), 앵거스 맥케니(Executive Director, OutdoorArtsUK), 브래들리 헤밍스(Artistic Director, FESTIVAL.ORG), 아마야 덴트(Freelance Creative Producer, currently the UK Producer for The Walk)
- 거리예술 작품을 영국으로 가져오기: 악셀 사제(Producer & Co-Director, Split Second)_의장, 이철성(비주얼씨어터 꽃 대표), 이진엽(코끼리들이 웃는다 연출)

• 한국 거리예술 포커스

- 한국의 거리예술 소개: 조동희(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팀장), 이란희(한국거리예술협회 대표), 윤종연(극단 몸꼴 대표), 박지선(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 거리예술 작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임현진(독립기획자)_의장, 로나 리스(Artistic Director, Gobbledegook Theatre), 잔 패츠키&올리비아 퀘일(Artistic Directors of Joli Vyann Dance Circus Company)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국 거리예술 포커스'와 영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거리예술 포커스'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의 한계점을 극복해보고자 1시간짜리 세션을 5개로 2주에 걸쳐 편성했다. 패널은 영국과 한국의 축제 및 창작센터 감독, 프로듀서, 예술가 등으로 구성하였고 사전에 패널과 참가자의 정보 및 작품자료는 소책자 형태로 공유, 사전에 참가자들의 기대하는 바를 수집하여 적용하는 등 비교적 짧은 세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우리는 양국의 거리예술 축제나 플랫폼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기존 양국 투어를 진행했던 예술가들의 경험담(투어 과정, 유익한 팁과 사담),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교류, 양국의 최근 작품 경향, 투어하고자 하는 작업과 관련된 Q&A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과 영국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추후 각자의 작업의 성격과 맞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피드백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제교류 및 예술작품의 해외투어를 위해 <Korea Connections>과 같은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불가

피하게 온라인 세션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작업하는 것이 익숙해진 만큼 이것이 양국의 접근성이나 비용절감(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도) 측면에서 앞으로의 국제교류에서 선택적으로 택해지는 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한 방식일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XTRAX> 프로젝트 담당자 회의 (출처 : 추수연)



<XTRAX> 홈페이지 내 참여자 소개 (출처 : 추수연)

짧은 파견 기간이었지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XTRAX가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중 영국 및 국제적 쇼케이스 기회 제공, 축제 간 협업 및 기금조성, 다양한 예술가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거리예술의 성장 및 확장을 위해 국내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지난 2년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시도하면서 진행해왔던 국제교류 경험(공동제작, 기예 워크숍, 리서치, 영상제작 등)을 바탕으로 유효한 온라인 교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교류 흐름에 대응하며 코로나가 열어 준 반갑지 않았던 온라인 작업 방식을 이제는 새롭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해 봐야 할 것이다.

파견기관

기관명 엑스트렉스 XTRAX
소재지 맨체스터 Manchester, UK
설립연도 1997년
홈페이지 xtrax.org.uk

추수연

무용을 전공하고 공공공간 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획자로 공연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포지션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관 및 축제, 예술단체와 작업하며 국내외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 창작, 교육,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메일 sudanse@naver.com



국제문화교류
후속 프로젝트 지원
NEXT Follow-up Support

NEXT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기간
목홍균	<프로젝트 더 그레잇 뮤지엄>	2021.7.1.~2021.12.31.
장은하	<포털, 순간이동>, 한국-터키 신진 시각예술가 교류 전시	2021.7.1.~2021.12.31.

프로젝트
더 그레잇 뮤지엄

목홍균 | 2018년 네덜란드 드아펠 파견

2018년 네덜란드 드아펠 펠로우십 과정에서 독립큐레이터 소피아 두론, 마니크헨드릭스를 알게 되었다. 모두 기술의 발전과 큐레토리얼 실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관련해서 프로젝트 연구를 하던 중 2020년 두산갤러리 공모에 전시 <사적인 노래 1>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본 전시는 알고리즘의 머신러닝을 이용해 작가를 선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큐라트론'을 개발한 독립큐레이터 카메론 맥레오드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연구모임을 만들고자 <콜렉티브 알앤디>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요코 네가미가 운영하는 원격 레지던시 <Creativity From Home>에 전시 <사적인 노래1>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요코 네가미와 프란시스 아나구가 함께 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실천적 큐레토리얼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고, 이에 이번 <더 그레잇 뮤지엄>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레지던시 진행 (출처: 목홍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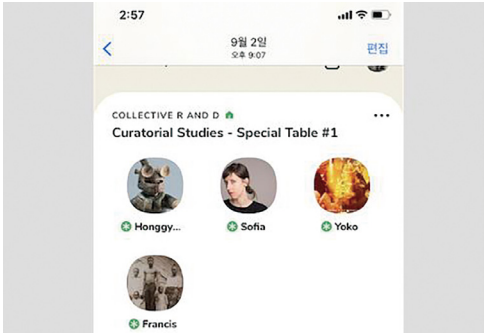


프로젝트 회의 (출처: 목홍균)

프로젝트 더 그레잇 뮤지엄은 다국적 연구자들의 협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이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서의 협업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경험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연구공동체를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연구의 결과물은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시점에 온라인 출판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되는데 향후 최소 5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종료 후에는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연구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프로젝트 제목 <더 그레잇 뮤지엄>은 사회학자 김동일의 미술관 체제에 대한 비



레지던시 진행 (출처: 목홍균)



클럽하우스 토론진행 (출처: 목홍균)

판적 시각에 공감하며 이를 대안 모색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차용했다.

"적어도 현재까지 대미술관 제도와 예술 생산력의 변화는 어색하지만 비교적 잘 공존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공존의 방식은 미술관이 동시대 미학이 열어 놓은 미학적 실천의 현장을 거대 전시장 내부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김동일 <상징투쟁의 사회학; 예술가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중에서 발췌.

그리고 '미술관이 동시대 미학이 열어 놓은 미학적 실천의 현장을 거대 전시장 내부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위의 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실험한다. 변화의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고, 원격 소통 시스템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두 전제 아래 기존 미술관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배치한다. 5명의 팀원은 각 파트를 책임지는 디렉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시, 레지던시, 랩, 콜렉션, 아카이브 등의 구성과 그 진행은 기존의 미술관의 그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그 동일한 구성 안에서 물리적 공간을 제거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공간이 의미 없거나 소용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도 안에는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볼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술과 사회가 만나는 접점으로써의 미술관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의 1960년대를 비교하는 연구를 비롯해 남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미술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의 홍콩의 예술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다.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15편의 에세이, 전시, 팟캐스트, 원격 레지던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으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동력 삼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모든 연구 결과물은 프로젝트 종료와 함께 공유되기 시작한다. 본 사업을 통해 출판플랫폼, 팟캐스트 등의 온라인 거점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협업 연구는 지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협업 프로젝트로 인해 기획자는 2022년도 한국, 네덜란드 국제교류사업의 총괄 디렉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국제교류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써 지난 6개월 동안의 경험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더 그레잇 뮤지엄 Project The Great Museum
기간 2021.7.1.~2021.12.31.
장소 온라인 프로젝트(www.thegreatmuseum.org)
프로그램

공개토론	클럽하우스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의 주제 연구,토론 (총 8회차 진행)
세미나(레지던시)	줌(페이스북 연계)을 활용하여 세미나 진행 (총 7회차 진행)
아카이브	Francis Annagu의 나이지리아와 한국의 1960,70년대 연구
콜렉션	Sofia Dourron의 미술관의 기원에 대한 연구
전시	Manique Hendricks의 사회변화: 자극제로서의 현대미술, 5명의 작가들의 작품 소개 (온라인 전시)
레지던시	Yoko Negami의 장소와 기억에 대한 연구. 5명의 참여자들이 각각 연구주제 발표
랩	Honggyun Mok의 최초의 실험실, 4명의 작가 소개
팟캐스트	Aaron McLaughlin, Bin Koh의 아티스트 톡 (6명의 작가 참여)

목홍균

독립기획자.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협력프로그램> 아르코 총괄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큐레토리얼 리서치 프로젝트 <Project The Great Museum>(2021,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시 <The City of Homeless>(아르코미술관,2016), <Privated Song I>(두산갤러리,2020)을 기획했다. 암스테르담 드아펠아트센터, 도쿄원더사이트, 런던V&A 의 연구자 및 펠로우십 과정에 참여했다.
이메일 firenze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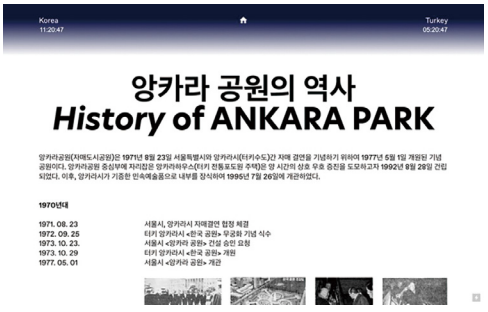
포털, 두 도시의 시·공간을 넘나들기

장은하 | 2019년 터키 이스탄불비엔날레 파견

2019년 이스탄불비엔날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언어의 영역과 온라인에는 존재하는 않는 무형의 것들에 대해 고민했다. 세계 각국에서 이스탄불비엔날레로 모여든 다양한 층위의 관람자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문화교류는 하나의 시·공간에서 촉발된다. 동일한 시간대, 하나의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만나, 정서적 교감을 나눔으로써, 온전한 문화교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수의 문화예술전시와 공연 등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특히, 문화교류 분야는 물리적인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존 대다수의 문화교류 방식은 지속 불가능해졌다.



전시 홈페이지, 전시 소개 섹션 (출처: 장은하)



전시 홈페이지, 양카라공원 역사 소개 섹션 (출처: 장은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포털(portal)'이라는 개념을 전시 매체를 통해 제안했다. '포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연결하는 마법이나 기술적인 문 혹은 '현관', '관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포털'은 우리의 존재를 '순간이동(teleport)'시킴으로써 대안으로 떠오르는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적네트워킹의 우연성을 회복하여 문화교류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전시에서 필연적으로 행해지는 스크롤링과 드래그에 의해 촉발된 피로감은 관람객이 물리적 공간에 도달함으로써 사라진다. 또한, 전시장 혹은 포털을 통해 우연히 마주하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포털은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며, 다른 세계 시간대, 공간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초국가적(transnational)'현관'이 된다.

전시 공간은 서울의 여의도 '앙카라 공원(자매도시공원)'에 위치한 '앙카라하우스'로 선정했다. 이곳은 한국과 터키의 문화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앙카라공



앙카라하우스 전경 (출처: 장은하)



전시장 전경 (출처: 장은하)

원'은 197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와 앙카라시(터키수도) 간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7년 5월 1일 개원되었다. 앙카라공원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앙카라하우스(터키 전통포도원 주택)는 양 시간의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1992년 8월 28일 건립되었다. 이후,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으로 내부를 장식하여 1995년 7월 26일에 개관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터키의 문화 교류 역사를 지닌 앙카라하우스는 한국과 터키의 문화교류 역사를 회고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본 전시에서는 이러한 '앙카라하우스'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여 한국과 터키의 문화교류 역사를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건물의 내구성 이슈로 인해 방문을 요청한 소수의 관람객에게만 출입을 허가했던 공간을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시 소개뿐만 아니라 앙카라공원과 앙카라하우스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섹션을 마련했다.

전시는 각각 이스탄불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예술가 에다 쉬둔치(Eda Sütunç)와 강민희의 작업을 터키 민속예술품과 조화롭게 구성하여, 전시 공간 내에서 과거와 동시대의 예술을 교차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2층에는 관람객 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 <포털>을 일일 두 시간 (서울 오후 4~6시, 이스탄불 오전 10~12시) 동안 운영했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여행하지 못한 관람객들에게 이스탄불의 지한기르(Cihangir)거리의 낯선 행인과 소통하는 일종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함께 춤을 추거나,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특히, 방과 후 어린이들의 방문이 비교적 많았다. 여러 번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탄불의 낯선 행인과 이야기를 나누길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도 있었다. 또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단체관람을 요청했으나 코로나 지침에 따라 관람객 인원 제한으로 아쉽게도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에다 쉬둔치, *The Weeper*, 2020
(출처: 장은하)

전시의 진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스탄불의 경우, 터키 프로듀서 피나르 윤(Pınar Yün)과 협력 큐레이터 멜리케 바익(Melike Bayık)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팬데믹이라는 쉽지 않은 조건에도 퍼블릭 프로그램 <포털>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이스탄불 미술관, 갤러리에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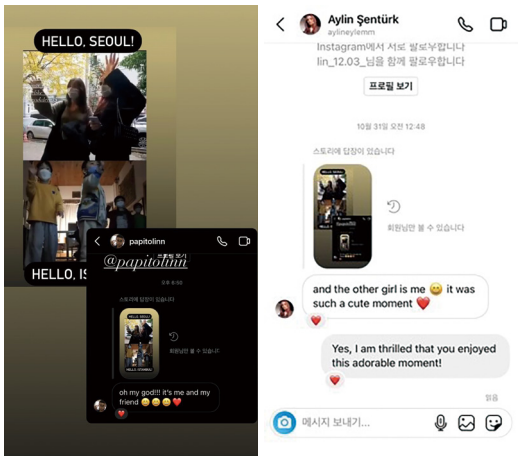
관객 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 (출처: 장은하)

를 요청했으며, 협력 큐레이터 멜리케 바일(Melike Bayık)의 도움으로 이스탄불의 지한기르(Cihangir)에 위치한 윈도우 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 진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문화교류에서의 인적 네트워킹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중 수많은 줌 미팅을 했다. 시차로 인해 주로 새벽 시간



관객 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스토리 (출처: 장은하)



관객 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디엠(Direct Message) (출처: 장은하)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시차와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에 대해 종종 떠올렸고, 시간의 양극성,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틈', 혹은 틈으로 미끄러지거나 사라져버리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왔다. 한국·터키 문화교류 전시 <포털, 순간이동>을 통해 '틈'으로 사라지는 존재나 역사를 소환하고, 쉽게 소멸하는 정서적 교감의 장을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시를 통해 두 작가의 작품, 전시 공간 그리고 한국과 터키 간 문화교류의 역사라는 다층의 맥락을 엮음으로써, 팬데믹 시대의 문화교류 전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포털, 순간이동(Portals, Teleportation)>
기간 2021.7.1.~2021.12.31.
장소 앙카라하우스(여의도, 앙카라공원)
프로그램

· **한국·터키 문화 교류 전시 <포털, 순간이동>**
- '포털(portal)'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를 연결 하는 마법이나 기술적인 문 혹은 '현관', '관문'이라는 뜻을 지닌다. 즉, 우리의 존재를 '순간이동(teleport)'시킴으로써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적네트워킹의 우연성을 회복하여 문화교류 방식을 재구성한다.

· **관객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 <포털>**
- 전시장 2층에 위치한 프로그램으로 일일 서울 오후 4~6시, 이스탄불 오전 10~12시에 개방되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퍼블릭 프로그램이다.
-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전시장에 방문한 관람객과 지한기르(Cihangir) 앞 갤러리를 지나는 행인이 우연히 <포털>을 통해 마주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장은하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현대미술이론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시각예술분야 신진인력으로 선정되어 이스탄불 비엔날레 The Seventh Continent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0 아시아기획전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로 일했으며, 2021년 리버풀비엔날레 The Stomach and the Port 큐레토리얼 스터디 그룹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후속사업으로 <포털, 순간이동(Portals, Teleportation)>(2021)을 기획 및 총괄했다.
이메일 eunhaart@gmail.com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Academy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중이거나 향후 국제교류 인력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현장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실무 워크숍을 제공하는 아카데미입니다.
본 아카데미는 <공통과정, 공연분야 과정, 시각분야 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과정은 사전신청 없이 상시 수강 가능하며, 공연 및 시각분야 과정은 사전신청한 수강생에게만 제공됩니다.

아카데미	교육과정	교육기간
온라인 교육	공통과정, 공연분야 과정, 시각분야 과정 총 11강	2021.12.2주~2022.2.3주
실무 워크숍	공연분야 4회, 시각분야 3회	2021.12.2주~3주

온라인 교육

• 구성

과정	전문가	주제
공통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부장	장애와 예술
	이경민 '미팅룸' 미술시장 연구팀 디렉터	온라인 미술시장 및 NFT 현황과 전망
	손상원 '이다엔터테인먼트' 대표	ICT와 예술
	심지언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기관 및 자료
공연	이희진 '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공연예술 국제교류 현황
	계명국, 허윤정 '블랙스트링' 프로듀서, 음악감독	해외 순회, 수교사업, 비대면 공연
	고강민 극단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	해외 공동제작, 쇼케이스, 공연 판권
시각	이대형 '에이치존' 대표	시각예술 국제교류 현황
	유승은 'SEY 아트넷' 대표	미술시장의 최근 동향과 중개자의 역할
	신수진 '램프랩' 대표	수교계기 국제전시 기획·운영
	김해주 2022 부산 비엔날레 전시감독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따른 교류

교육대상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현장종사자 및 예비인력
교육비	무료
교육채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www.kofice.or.kr 사업소개>전문인력양성>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구성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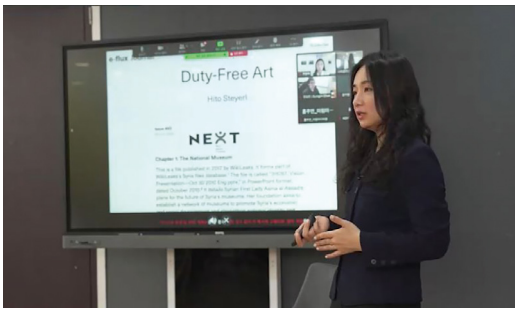
실무 워크숍

• 구성

과정	전문가	주제	세부내용
공연	김연정 '올웨이즈 어웨이크' 대표	공연 투어 시뮬레이션 (리서치·기획·운영·정산)	· 예술단체 리서치 · 적합한 연계 투어 기관·단체 설정 · 관련 행정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 · 투어, 공동제작 등 구조 설정 · 과제 점검 및 1:1 멘토링
시각	이설희 2022년 베니스비엔날레 사무국장	리서치와 네트워크 구축, 전시 기획	· 전시 프로세스 및 전시 종류 · 국내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교류 · 리서치와 네트워크 구축
	윤승연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관	동시대 뮤지엄과 홍보마케팅, 소통전략	· 환경변화와 뮤지엄 · 문화예술 시장과 고객 · 국립현대미술관 홍보마케팅
	캐슬린 김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	전시와 국제 계약	· 글로벌 예술거래의 특수성과 기본 원칙 · 국제 예술거래의 주요 쟁점 및 사례 · 국제거래 시 유의사항



공연분야 실무 워크숍 김연정 대표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시각분야 실무 워크숍 이설희 사무국장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시각분야 실무 워크숍 윤승연 홍보관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시각분야 실무 워크숍 캐슬린 김 변호사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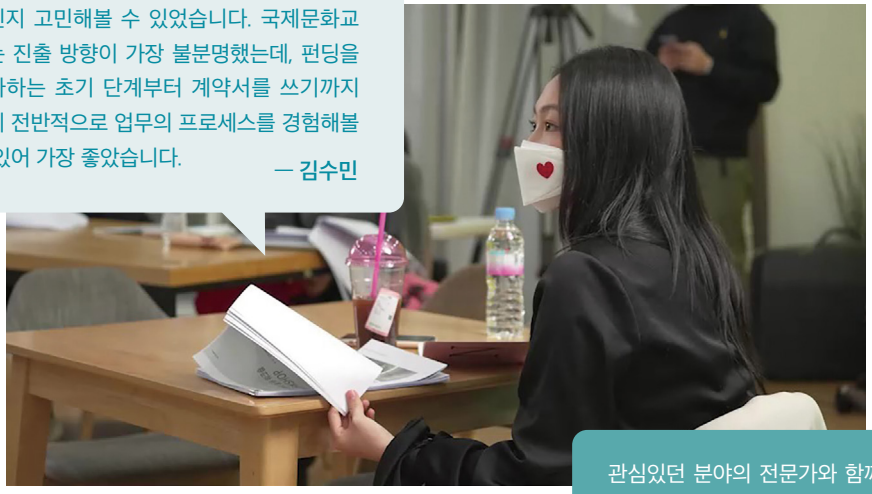
• 참여자 코멘트

학교에서 예술 경영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몰랐던 '문화 기획자'라는 직업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업무의 성질과 어떤 역량이 필요한 일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문화교류는 진출 방향이 가장 불분명했는데, 펀딩을 조사하는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를 쓰기까지 전반적으로 업무의 프로세스를 경험해볼 수 있어 가장 좋았습니다.

— 김수민

문화예술 기획일을 하며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양질의 강의를 들으며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성정현



관심있던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며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김정민



실무 워크숍 참여자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국제 문화 교류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은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NEXT 아카데미의 워크숍 덕분에 세계 미술 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열심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최지규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멘토들과 온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소통하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실무 현장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다음 심화 과정도 기대됩니다.

— 최원희

202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NEXT STORY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발행인 정길화(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발행일 2022년 2월
기획총괄 교류기획부 교류기반팀
디자인 studio 213ho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Tel 02-3153-1764
Fax 02-3153-1787
www.kofice.or.kr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ww.kofice.or.kr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